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서지학적 고찰 및 내용 분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오계근¹ · 윤창열¹ *

A Study on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本草經校正)』

Oh Chae-kun¹ · Yoon chang-yeol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discuss about the scholarship value and contents of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 that was obtained recently.

Methods : We analysed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 itself and compared form and matter with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神農本草經], Compendium of Materia Medica[本草綱目].

Results : 1. It is obvious that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 is one of the book works of Lee Gyujun.

2.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 was written to recover the original figure of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standing on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Lee Gyujun corrected qi, flavor and main effects of herbs according to his medical sight, and classified herbs into three grade.

Conclusions :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 is not an original book but an interim book on working process. But it reflects the medical sight of Lee Gyujun and the medical level of those days sufficiently. Also it is the only study of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in Chosun dynasty.

Key Words :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本草經校正), Lee Gyujun(李奎峻), Major Essentials of the Plain Questions(素問大要), Repeated Grinding Mirror of Medicine(醫鑑重磨),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神農本草經), Compendium of Materia Medica(本草綱目)

I. 서론

三木榮은 『東醫寶鑑』 「湯液篇」 이후 이를 뛰어넘는 본초학 저술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며 『濟衆新編』, 『醫宗損益』, 『方藥合編』 등의 의서에서 게재되어 있는 藥性歌는 조선에서 특이하게 발전한 ‘藥性歌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yoony@dju.ac.kr Tel : 042) 280-2601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本草學'이라고 칭하였다¹⁾. 하지만 그의 지적처럼 상용 약물의 性味와 치료 효능을 歌賦 형식으로 압축 편성하고 제법 등에 대한 주석까지도 첨부하며 또 이해, 기억하기 쉽도록 구성된 藥性歌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본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²⁾. 조선의 본초학술사상의 전통을 鄉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약물 체계를 구축하려했던 『鄉藥集成方』이나 『東醫寶鑑』 『湯液編』 등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本草의 原典인 『神農本草經』에 대한 연구 성과를 찾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石谷 李奎峻, 無爲堂 李元世³⁾로 이어지는 한의학 학술 사상 계승자 중의 한 명인 최춘길⁴⁾과 素問學會⁵⁾로부터 입수한 필사본 서적을 통해 『神農本草經』 관련 연구 성과물의 구성 양식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본 필사본의 원저자로 추정되는 石谷 李奎峻(1855~1923)은 구한말의 유학자이자 의가로 김두중(1981)에 따르면 『六經』(毛詩·尚書·周易·春秋·周禮·儀禮)의 刪正書 26冊, 『經髓三篇』(大學, 中庸, 禮運) 1冊, 『典禮』 1책, 『論語』 3冊, 『孝經』 1冊, 『唐宋古詩』 1冊, 『後千字』 1冊, 『浦上奇聞』 1冊, 『石谷心書』 1冊, 『九章要訣』 1冊, 『神教術世文』 1冊과 『石谷散稿』 2冊 등의 유학 관련 저작과 『醫鑑重磨』 3冊(木板), 『黃帝素問節要』 2冊(活印)⁶⁾, 『本草』 上下 2冊(寫本)

등의 의학 관련 저작을 저술하여 세상에 전하고 있다고 한다⁷⁾. 현재 의학 관련 저작인 『醫鑑重磨』와 『黃帝素問節要』는 알려져 있지만 『本草』의 실존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李奎峻의 저술 및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김적의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⁸⁾과 학술 사상에 대해 논하고 있는 황원덕의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⁹⁾, 권오민의 「李奎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¹⁰⁾, 정수경의 「石谷 扶陽論의 韓方婦人科 臨床應用을 위한 醫史學的 考察」¹¹⁾, 그리고 의학 저작에 관해 다루고 있는 김중한의 「李奎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¹²⁾과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¹³⁾, 김창건의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연구」¹⁴⁾, 오재근, 윤창열의 「醫鑑重磨의 약성가에 대한 연구」¹⁵⁾ 등이 있다. 특히 오재근, 윤창열(2009)은 앞의 논문에서 李奎峻의 藥性歌 연구를 통해 그의 本草觀 일부를 살펴 보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첫째, 필사본의 형태 사항에 대한 검토, 둘째, 필사본의 내용 분석을 통한 저자에 대한 고찰, 셋째, 관련 저작이라 할 수 있는 『神農本草經』, 『本草綱目』과의 형식 및 내용 상 비교, 넷째, 李奎峻의 또다른 저작인 『醫鑑重磨』 중 藥性歌와의 내용 비교 등을 통해 李奎

1) 三木榮. 朝鮮醫籍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4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 1963. p.357.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 1963. p.358.
3) 소문학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 May 6]. Available from: URL: <http://www.somun.or.kr> “無爲堂 李元世(1903~2001) : 石谷 李奎峻, 石齋 徐丙五에게서 한 의학을 사사받고 대구에서 無爲堂漢醫院을 열어 진료하다가 부산으로 옮겨 현 素問學會의 모태가 된 모임을 만들고 후진 양성에 힘쓴. 저서로는 『新方新編』(대성의학사, 2001), 『醫鑑重磨百病總括』(대성의학사, 2001) 등이 있음.”
4) 현 대구 동성한약방 대표
5) 소문학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 May 6]. Available from: URL: <http://www.somun.or.kr> “石谷 李奎峻의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평가받던 無爲堂 李元世에게서 李奎峻의 의학 이론 전반을 사사받던 김용호 외 10여 명의 한의사가 1990년 石谷學會라는 이름으로 결성한 뒤 1996년 素問學會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이름.
6) 李奎峻의 『素問大要』 黃帝素問大要題誌 중에서 “素問의 大要를 취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책의 제목 역시 ‘節

要’가 아닌 ‘大要’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7) 金斗鐘. 韓國醫學史(全). 서울. 探究堂. 1981. p.463.
8)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9)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12(2). pp.15-53.
10) 권오민, 차용석, 김남일. 李奎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1). pp.3-29.
11) 정수경. 石谷 扶陽論의 韓方婦人科 臨床應用을 위한 醫史學的 考察.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김중환. 李奎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1. 5. pp.18-46.
13) 김중환.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57-63.
14) 김창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오재근, 윤창열. 醫鑑重磨의 약성가에 대한 연구. 2009 소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 pp.9-27.

峻의 本草에 대한 특징적 사고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본서의 유통 경위

본 서적은 石谷 李奎峻의 학통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받던 無爲堂 李元世의 제자인 최춘길에게서 2009년에 입수한 것으로,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에서 송원당한의원을 개업하고 있던 李奎峻의 자제 李惇鐘(1894~1960)¹⁶⁾과 교류하던 崔顯泳(1913~1974)¹⁷⁾으로부터 1962년 경에 전해 받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2. 형태 사항

본서의 형태사항은 3권 2책, 필사본으로 無界, 10행 22字 註雙行, 26×18cm이다.



그림 1. 『本草經校正』(필사본) 표지 및 서문

3. 제목

- 16) 慶州李氏益齊公派家牒에 따르면 李奎峻은 李泊鐘, 李惇鐘, 李淳鐘의 3형제를 두었다. 김두중(1981)은 3형제의 이름을 李泊鐘, 李敦鐘, 李純鐘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3형제가 모두 漢醫業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김두중(1981)에 기록되어 있는 李敦鐘을 慶州李氏益齊公派家牒에 의거하여 李惇鐘으로 수정한다.
- 17) 최춘길은 崔顯泳씨를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름난 한학자, 한의학자로 기억하고 있으나 자세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김두중(1981)과 김적(1979)은 이규준의 저서로 ‘本草’라는 이름의 필사본이 전해진다고 하였으나¹⁸⁾ 본서의 表題는 ‘神農本草’, 卷首題는 ‘神農本草經’으로 되어 있으며 서문과 목록에 각각 ‘本草經校正序’, ‘本草經校正目錄’ 등으로 적혀져 있어 정확한 명칭을 짐작할 수 없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卷首題에 의거하여 『神農本草經』으로 부르는 것이 관례이나 이렇게 할 경우 東漢 말에 저작된 것으로 알려진 『神農本草經』과 혼동의 여지가 있고¹⁹⁾, 본 필사본이 『神農本草經』에 대한 집본본이 아니며, 본문 중에 상당 부분 石谷 李奎峻이 본인의 견해에 따라 형식, 내용 등의 측면에서 수정을 가하고 있으므로 序題와 目錄題에 따라 『本草經校正』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서적을 『本草經校正』(필사본)으로 칭한다.

4. 내용 구성

책은 乾과 坤, 2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乾은 序, 目錄, 本草綱目序例, 本草藥品總數, 神農本草經名例, 歷代諸家本草, 神農本草經卷一, 神農本草經卷二, 新補中藥으로, 坤은 神農本草經卷之三, 本草附錄目錄, 本草增附百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卷一은 上品藥 125種, 卷二는 中品藥 120種과 新補中藥 13種²⁰⁾, 卷三은 下品藥 120種을 수록하고 있으며, 本草增附百選에서는 80種의 약물을 추가 수록하고 있다²¹⁾. 각각의 분량은 序, 目錄 등을 제외하면 乾은

18) 金斗鐘. 韓國醫學史(全). 서울. 探究堂. 1981. p.463.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8.

김두중(1981)은 本草 上·下가 전해진다고 하였고, 김적(1979)은 本草 上·中·下 1冊이 전해진다고 하여 책 수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기초 자료가 되는 『本草經校正』(필사본)은 乾坤 각 1冊으로 되어 있어 김두중의 기록과 유사하나 上·下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사본 원본의 확보가 시급하다.

19)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39.

20) 실제 新補中藥에 수록되어 있는 약물의 가짓수는 13종이 아닌 16종이나 李奎峻이 본문 중에 新補中藥十三種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13종으로 기재한다. 이는 본 필사본이 완정본이 아닌 중간본임을 보여준다.

卷一 55葉, 卷二 58葉과 新補中藥 6葉, 坤은 卷三 55葉과 本草增附百選28葉으로 이루어져 있다.

5. 『本草經校正』(필사본)에 대한 기존의 평가

李元世로부터 李奎峻의 학통을 전수받아 활동하고 있는 素問學會의 전 회장 황원덕²²⁾의 말에 의하면 생전에 본 필사본을 살펴보았던 李元世는 “序文의 내용을 미루어보아 石谷의 저작으로 여겨지나 다른 책에서는 보통 石谷山人 등의 필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필사본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필체 역시 石谷 본인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定本이 아닌 轉寫本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본 서적을 소지하고 있는 최준길 역시 본 서적의 글씨체는 李奎峻의 자제인 李惇鐘이나 책을 전해준 崔顯泳의 서체가 아니어서 또 다른 사람이 轉寫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다.

6. 『本草經校正』(필사본)의 특징 및 독창성

『本草經校正』(필사본)은 定本이 아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서문, 목록 구성 및 부록 등이 그 내용 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독창적이고 또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하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1) 『本草經校正』 序

本草經校正序

『本草經』은 神農氏로부터 시작하여 黃帝에서 이루어졌다. 上中下 三品の 약이 모두 三百六十五種²³⁾으로 하늘의 周天度數인 365도에 대응되고 桐君과 雷公은 각각 讚翼을 지었다²⁴⁾. 살펴보건대 『淮南子』에서 이르기를 神農氏가

21) 실제 本草增附百選에 수록되어 있는 약물의 가짓수는 80종이 아닌 78종이나 李奎峻이 서문 중에서 “取八十種, 以附其後.”라고 하였으므로 80종으로 기재한다. 이 역시 본 필사본이 완정본이 아닌 중간본임을 보여준다.
22) 현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
23) 본문에는 百六十五種으로 되어 있으나 옆에 작은 글씨로 ‘三’이 적혀 있어 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본문 중 歷代諸家本草에서는 『本草綱目』의 『桐君采藥錄』 『雷公藥對』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찍이 백가지 풀의 맛(滋味)을 보고 하루에 칠십 차례 중독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醫方이 흥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掌禹錫은 이로써 本草經이 지어진 증거를 삼았고²⁵⁾, 『帝王世紀』에서는 黃帝가 岐伯으로 하여금 草木을 상세히(詳) 맛보라고 하여 『本草經』을 질정하였다(定)라고 하여 寇宗奭은 이에 의탁하고 있으니²⁶⁾ 두 가지 내용이 달리 논란을 하고 있어 참으로 의심스럽다. 孔子家語에서는 孔子가 五帝德을 이야기하며 이르기를, 黃帝는 나면서 신령하시고, 어려서부터 능히 말을 하였으며, 죽고 사는 이치를 통달하고, 草木의 味를 알았다고 하였으니 『帝王世紀』에서 말한 것은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本)²⁷⁾. 그러나 상세히 하다(詳), 질정하다(定), 근본을 두다(本)라고 한 것은 옛 것을 상세히 살펴 질정(詳定)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藥이라는 것은 오직 옛 것을 이어 받되 치료 효과는 쓰임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陶弘景의 『名醫別錄』을 살펴보면 약의 각 氣味를 나열하면서 일견 기를 뒹팎가 神農이 寒하다고 한 것을 桐君과 雷公은 苦하다 하고, 黃帝와 岐伯은 甘하다고 한 것이 있고²⁸⁾ 또한 神農과 黃帝가 甘溫하다

25)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影印). 1989. p.208. “時多疾病毒傷之害, 於是神農乃始教民播種五穀, 相土地宜燥濕肥瘠高下, 嘗百草之滋味, 水泉之甘苦, 令民知所辟就. 當此之時, 一日而遇七十毒.”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 “『淮南子』云, 神農嘗百草之滋味, 一日而七十毒, 由是醫方興焉.”
26) 寇宗奭. 本草衍義.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6. p.3. “嘗讀帝王世紀曰, 黃帝使岐伯嘗味草木, 定本草經, 造醫方以療衆疾, 則知本草之名, 自黃帝岐伯始.”
27) 王肅. 新譯孔子家語. 臺北. 三民書局. 1998. pp.343-344. “黃帝者, 少典之子, 曰軒轅.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齊叡莊, 敦敏誠信, 長聰明. 治五氣, 設五量, 撫萬民, 度四方, 服牛乘馬, 擾馴猛獸, 以與炎帝戰于阪泉之野, 三戰而後剋之. 始垂衣裳, 作爲黼黻, 治民以順天地之紀, 知幽明之故, 達生死存亡之說, 播時百穀, 嘗味草木, 仁厚及於鳥獸昆蟲, 考日月星辰, 勞耳目, 勤心力, 用水火財物以生民, 民賴其利, 百年而死. 民畏其神, 百年而亡. 民用其教, 百年而移, 故曰黃帝三百年.”
2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01.

고 한 것을 岐伯과 扁鵲은 苦寒하다고 하였다고 이른 것이 있으니 陶弘景은 梁의 사람이고 吳普는 後漢의 사람으로 神農과 黃帝의 책이 漢나라 당시에도 여전히 각각 남아 있다가 吳普에 의해 처음 한 권의 책으로 합쳐졌지만 秦의 시대를 지낸 뒤 方士들의 손을 거치면서 잘못이 있게 되어 약품의 氣味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唐宋 이래로 本草 서적들은 매우 많아지게 되었으나 모두 陶弘景의 책을 전하면서 약물의 수를 더하고 약효를 첨가한 것이다. 그 종류가 천 여 개에 달하게 되었고 책은 50권을 넘게 되어 다양하기는 하나 요점을 잃게 되었고, 잡다하나 정밀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黃帝素問』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취해 요약한 바가 있었는데 공부하는 이들의 요청으로 다시 藥性を 취해 잘못됨을 수정하고자 하였다²⁹⁾. 내가 李時珍의 『本草綱目』을 살펴건대 비록 部를 구분한 것이 넓고 번잡하여 『神農本草經』을 회복시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藥種의 아래에 오히려 本經 上中下 三品の 글자를 주석을 달아 놓았으니, 비유컨대 尺寸이 누차 변하였으나 黃鐘은 여전히 남아있고, 鎗鈇는 모두 사라졌으나 斤兩은 남아 있는 것과 같다. 이에 근거하여 347종을 수집하고 부족한 18종은 한 가지 약물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충하여 『本草經』 세 권을 확정하여 上中下 三品の 차이를 밝혔으며, 氣味 중에 이미 경험한 것은 하나로 꿰었으며,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개정을 하고 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다³⁰⁾. 主

治는 오직 本草經을 위주로 하였으며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의심스러운 것도 우선 옛 것을 답습하여 그대로 두었고, 또 陶弘景의 『名醫別錄』 중에 諸家들의 의견과 반하는 것을 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약하여 간추림에 힘썼다. 또한 더해지고 첨가된 것들 중에서 통용되는 것을 추려 80종을 취해 뒤에 첨부하였다. 애석하도다! 이와 같이 하였어도 『神農本草經』의 본 모습은 아니나 藥性 三品の 高下 차이만은 잃지 않았으니 醫學을 공부하는 자가 祖宗으로 삼아 처방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약초를 캐는 사람들도 책을 펼쳐본다면 채취할 바를 알아 있을 것이다.(『本草經』은 始於神農^{하야} 成於黃帝^라 上中下三品藥이 凡三百有六十五種^{이니} 以應周天三百有六十五度^요 而桐君雷公이 各有贊翼焉^{이니라} 按^{컨대} 『淮南子』云 神農이 嘗百草滋味^{하야} 一日七十毒^{하시니} 由是^로 醫方興焉^{이라하니} 而掌禹錫이 以爲『本草經』原證^{하고} 『帝王世紀』云 黃帝가 使岐伯^{으로} 詳味草木^{하야} 定『本草經』^{이라하니} 而寇宗奭이 據此^{하니} 以難彼此^에 固可疑然^{이라} 『家語』孔子論五帝德曰 黃帝生而神靈^{하고} 弱而能言^{하시며} 達死生之理^{하고} 知草木之味^{라하니} 世紀所云은 蓋本於此^라 然而曰詳曰定曰本은 以見稽古而詳定^{이니} 蓋藥唯因舊而治則增用也^라 又按^{컨대} 陶弘景『別錄』에 列藥種氣味而有稱 吳普云 神農寒^{이나} 桐君雷公苦^{하고} 黃帝岐伯甘^{하며} 又有神農黃帝甘溫^{이나} 岐伯扁鵲苦寒者^는 弘景梁人吳普後漢人^{이니} 則神農黃帝之書가 漢時尚各存而 至吳普^{하야} 始合爲一書^나 第以經秦之後^에 方士歷手^{하야} 互有得失故^로 藥品氣味가 有相不同爾^라 唐宋以來^로 本草之書甚繁^{이나} 皆因陶氏而傳相增附^라 種至千餘^{하고} 卷過半百^{이나} 博而不要^{하고} 雜而不精^{하야} 覽者厭之^{하니} 豈不惜哉^아 余嘗於『黃帝素問』^에 有所節要者^{러니} 彼學者所請^{으로} 欲復取藥性

人參의 根에 대한 설명 중에서 “『別錄』曰, 微溫, 普曰, 神農小寒, 桐君雷公苦, 黃帝岐伯甘無毒.”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9) '黃帝素問의 필요한 부분만을 취해 요약했다'는 것은 『黃帝素問大要』를 집필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藥性を 다시 취해 수정하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神農本草經』에 대한 교정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30) '皆改正而標匡之'로 되어 있어 '匡'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上品藥 끝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李奎陵의 의견 중에 '加匡以識之'라는 구절에 의거하여 테두리

를 둘러 표시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하지만 본 필사본에서 '□'로 테두리를 두른 표식을 찾아볼 수는 없고 주로 性味 관련 부분에서 '()'로 된 표식을 찾아볼 수는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의 표식을 '匡'이라 불렀던지 아니면 전사 과정 중에 '□'로 되어 있었을 테두리 모양이 '()'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而修正之³¹⁾ 竊觀李時珍『本草綱目』³²⁾ 雖分部浩繁³³⁾ 非復神農之本經³⁴⁾ 然藥種之下³⁵⁾ 猶注本經上中下三品字³⁶⁾ 譬猶尺寸屢變而黃鐘猶存³⁷⁾ 鎔鍊盡亡而斤兩可徵³⁸⁾ 因是³⁹⁾ 蒐集得三百有四十七種⁴⁰⁾ 不足十八種⁴¹⁾ 遂分其一物異用者充之⁴²⁾ 定本草經三卷⁴³⁾ 以明上中下三品之殊⁴⁴⁾ 貫其氣味之已驗⁴⁵⁾ 可知者⁴⁶⁾ 皆改正而標匡之⁴⁷⁾ 主治⁴⁸⁾ 惟主本經⁴⁹⁾ 而其有延年可疑者⁵⁰⁾ 嫻因存之⁵¹⁾ 亦取陶氏別錄反諸家說⁵²⁾ 以備參考而務在節略⁵³⁾ 既又就增附中采其通用者⁵⁴⁾ 取八十種⁵⁵⁾ 以附其後⁵⁶⁾ 吁⁵⁷⁾ 此亦殆非神農本經之眞面⁵⁸⁾ 然庶不失藥性三品之高下⁵⁹⁾ 不惟學醫者之其祖宗而制方⁶⁰⁾ 亦使林下之士開卷而有知采云⁶¹⁾

서문 중에 저작 기일, 날인 등이 없어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내용 중에,

나는 본디 黃帝 素問의 요점을 간추린 바가 있었는데 공부하는 이들의 요청으로 다시 藥性을 취하고 잘못됨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라는 말이 있어 『黃帝內經素問大要』를 편찬하였던 李奎峻의 글임을 확인시켜준다. 더구나 李奎峻의 또 다른 저작인 『醫鑑重磨』 서문에도 ‘내가 素問內經에 대해 요점을 간추린 바가 있었는데’라고 하여 위 구절과 유사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다³¹⁾.

2) 『神農本草經』, 『本草綱目』과의 목록 비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필사본 편찬의 목적은 『神農本草經』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藥性을 다시 취하고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三品分類를 증시하고 있다. 또한 서문 중에서는 『神農本草經』의 校正 작업에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 『本草綱目』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하 표 1에서 『神農本草經』³²⁾, 『本草綱目』³³⁾ 그리고 『本草經校

正』(필사본)의 목록을 비교하여 게재한다.

표 1의 목록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本草經校正』(필사본)이 시도하고 있는 三品分類의 변화이다. 『神農本草經』과 『本草經校正』(필사본)은 三品分類를 채택하고 있지만 『本草綱目』은 三品分類가 아닌 자연 분류를 활용하고 있다³⁴⁾. 이는 李時珍이 『本草綱目』을 저술하면서 폐기하였던 三品分類방식을 李奎峻이 복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神農本草經』의 원형을 염두에 둔 편찬 작업을 알 수 있게 한다. 『本草經校正』(필사본)의 三品分類는 대부분 『神農本草經』의 그것을 따르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래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淫羊藿, 當歸와 같은 『神農本草經』의 中品 藥물이 上品으로 올라왔고 黃連, 柴胡, 升麻, 獨活, 防風, 薇銜, 白蒿, 艾³⁵⁾, 藍, 防葵, 茜根의 上品 藥물이 中品 藥물로 내려갔으며, 龍膽, 雲實의 上品 藥물이 下品으로 貝母, 蜀羊泉, 括樓根, 防己의 中品 藥물이 下品으로 내려갔다. 藥물의 삼품 분류의 변화는 草部 藥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木部, 果部 등도 아우르고 있어 李奎峻 자신이 『神農本草經』과 『本草綱目』을 기반으로 새로운 三品分類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1) 이규준. 醫鑑重磨 天. 대구. 徐丙五. 1922. p.1. “余於素問內經嘗有所節要者”

32) 본 논문 작업에 참고한 『神農本草經』은 孫星衍 輯復. 神農本草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影印). 1977이다.

33) 본 논문 작업에 참고한 『本草綱目』은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이다.

34) 한의학 본초 서적의 藥물 분류에 관해서는 石戶谷勉. 漢方藥物分類史大觀. 本草. 1933. 8. pp.352-358. 참조.

35) 『神農本草經』에는 ‘艾’조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白蒿의 이명으로 되어 있다. 『本草綱目』에는 艾와 白蒿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氣味, 主治의 내용을 보더라도 『本草經校正』이 『本草綱目』을 참고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神農本草經』		『本草經校正』(필사본)36)			『本草綱目』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卷一 上藥120種	玉石上品18種 舊同	卷一 上藥125種	草部56種	山草 ¹⁴ 芳草 ⁷ 濕草 ²⁰ 蔓草 ¹² 水草 ⁴ 石草 ⁴ 苔草 ¹	水部2類	天水類13種 地水類30種
	草上品73種 舊72種		木部	香木 ⁹ 叢木 ⁷ 寓木 ⁵		
	木上品20種 舊19種		果部5種	山果 ³ 水果 ²		
	人1種 舊同		穀部3種		火部1類	凡11種
	獸上品6種 舊同		菜部9種	蔬菜 ³		
	禽上品2種 舊同		蟲部3種			
	蟲魚上品10種 舊同		鱗部3種		土部1類	凡61種
	果上品5種 舊6種		介部2種			
	米穀上品2種 舊3種		禽部6種			
菜上品5種 舊同	獸部6種		金石部4類	金類28種 玉類14種 石類上32種 石類下40種 鹵石類20種 附錄27種		
	石部12種					
卷二 中藥120種	玉石中品14種 舊16種	卷二 中藥120種	草部53種	山草 ¹⁹ 芳草 ¹¹ 濕草 ¹⁶ 蔓草 ⁴ 水草 ² 石草 ²	草部10類	山草類上31種 山草類下39種 芳草類56種 濕草類上53種 濕草類下73種 毒草類47種 蔓草類73種 附錄19種 水草類23種 石草類 19種 苔類16種 雜草類9種 有名未用153種
	草中品49種 舊46種		木部15種	喬木 ⁸ 寓木 ⁵ 苞木 ¹		
	木中品17種 舊同		果部4種	山果 ⁴		
	獸中品7種 舊同		穀部5種		穀部4類	麻麥稻類12種 稷粟類18種 菽豆類14種 造 釀類29種
	禽中品2種 舊3種		菜部6種			
	蟲魚中品17種 舊16種		蟲部10種			
	果中品1種 舊同		鱗部3種		菜部5類	葷辛類32種 柔滑類41種 蕪菜類11種 水菜 類6種 芝樅類15種
	米穀中品3種 舊2種		介部4種			
	菜中品3種 舊同		禽部2種			
			獸部7種		果部6類	五果類11種 山果類34種 夷果類31種 味類 13種 蕪類9種 水果類6種 附錄23種
	人部1種					
	金部2種					
	石部8種					
	新補中藥13種					
卷三 下藥125種	玉石下品8種 舊12種	卷三 下藥120種	草部58種	山草 ⁴ 濕草 ⁴ 毒草 ²⁸ 蔓草 ⁶ 水草 ¹ 石草 ¹ 苔草 ¹	木部6類	香木類35種 喬木類52種 灌木類51種 寓木 類12種 苞木類4種 雜木類7種 附錄19種
	草下品49種 舊48種		木部13種	喬木 ⁷ 叢木 ⁴ 寓木 ¹ 陳木 ¹		
	木下品17種 舊18種		果部3種			
	獸下品4種 舊同		菜部3種		服器部2類	服帛類25種 器物類54種
	蟲部18種					

蟲魚下品18種 舊同 果下品2種 舊同 米穀下品1種 舊同 菜下品2種 舊同 一種未詳		鱗部2種	蟲部4類 鱗部4類	卵生類上23種 卵生類下22種 化生類31種 濕生類23種 附錄7種
		介部2種		
		禽部1種		
		獸部3種		
		土部2種		
金部4種	龍類9種 蛇類17種 魚類31種 無鱗魚類28種 附錄9種			
石部13種				
本草附錄 80種		草部16種	介部2類	魚鱉類17種 蛙蛤類29種
		木部		
		果部13種		
	穀部5種	禽部4類	水禽類23種 原禽類23種 林禽類17種 山禽類13種 附錄1種	
	菜部13種			
	蟲部1種			
	鱗部4種			
	介部2種	獸部4類	畜類28種 獸類38種 鼠類12種 寓類怪類共8種	
	禽部2種			
	獸部2種			
	人部3種	人部1類	凡37種	
	水部1種			
	石部2種			

표 1. 『神農本草經』, 『本草經校正』(필사본), 『本草綱目』의 본초 분류 비교

36) 본문 중에 수록된 약물의 개수가 아닌 목록에 나와 있는 개수를 기록하였다. 본문 중에 수록된 실제 약물 수와 목록에 나와 있는 약물의 수는 다르다. 예를 들어 上藥의 草部 중에서 목록에는 濕草의 약물수가 20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의 菊 하단에는 濕草가 共23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실제 본문 중에서 菴蔚子, 菴蔚 등과 같은 한 약물의 하위 분류를 구별하지 않고 세어보면 총 28종이 실려 있다.

구분	『本草經校正』(필사본)	『神農本草經』 ³⁷⁾
草部上藥	<p>甘草 人參 沙參 黃耆 丹參 萎蕤 肉蓯蓉 赤箭 朮 巴戟天 遠志 淫羊藿 細辛 徐長卿 當歸 芍藥 藤蕪 蛇床子 木香 杜若 蘭草 菊 蒼朮 茵陳 充蔚子 續斷 漏蘆 飛廉 天名精 石龍芻 地黃 牛膝 麥門冬 葵 決明子 地膚子 車前子 蒺藜 薯蕷 菟絲子 五味子 蓬蘽 旋花 白英 營實 薔薇 天門冬 白兔藿 澤瀉 絡石 石斛 菖蒲 香蒲 蒲黃 卷柏</p>	<p>菖蒲 藟華 人參 天門冬 甘草 乾地黄 朮 兔絲子 牛膝 充蔚子 女萎 防葵 芫藷 麥門冬 獨活 車前子 木香 署豫 薏苡仁 澤瀉 遠志 龍膽 細辛 石斛 巴戟天 白英 白蒿 赤箭 奄闔子 析蓂子 著實 赤黑青白黃紫芝 卷柏 藍實 芍藥 藤蕪 黃連 絡石 蒺藜子 黃耆 肉松容 防風 蒲黃 香蒲 續斷 漏蘆 營實 天名精 決明子 丹參 茜根 飛廉 五味子 旋華 蘭艸 蛇床子 地膚子 景天 因陳 杜若 沙參 白兔藿 徐長卿 石龍芻 薇銜 雲實 王不留行 升麻 青囊 姑活 別羈 屈艸 淮木</p>
草部中藥	<p>元參 紫參 地榆 王孫 知母 紫草 黃連 黃芩 秦艽 苦參 柴胡 升麻 獨活 白鮮 茅根 狗脊 白薇 槁本 白芷 防風 芍藥 牧丹 澤蘭 爵床 假蘇 雪草 本蘇³⁸⁾ 泉耳 馬先蒿 蠡實 麻黃 紫苑 女苑 疑冬花³⁹⁾ 酸醬 敗醬 瞿麥 薇銜 白蒿 艾 藍 防葵 石龍芮 葛 王瓜 葶藶 通草 紫葳 茜根 水萍 海藻</p>	<p>乾薑 泉耳實 葛根 括樓 苦參 當歸 麻黃 通草 芍藥 蠡實 瞿麥 元參 秦⁴⁰⁾ 百合 知母 貝母 白芷 淫羊藿 黃芩 狗脊 石龍芮 茅根 紫苑 紫草 敗醬 白鮮皮 酸醬 紫參 藟本 石韋 葶藶 白薇 水萍 王瓜 地榆 海藻 澤蘭 防己 款冬華 牡丹 馬先蒿 積雪草 女苑 王孫 蜀羊泉 爵床 假蘇 翹根</p>
草部下藥	<p>桔梗 貫衆 白頭翁 白芨 龍膽 貝母 菁蒿 夏枯草 青葙 旋復花 蒿歷⁴⁰⁾ 蛇含 女青 蜀羊泉 連翹 陵英⁴¹⁾ 篇蓄 蘆葦 雲實 澤漆 大黃 商陸 狼毒 狼牙 萹荇 蘭茹 甘遂 大戟 常山 藜蘆 附子^{烏頭} 天雄 烏喙⁴²⁾(烏頭) 牛扁(牛蒡) 虎掌^{南星} 由跋⁴³⁾ 半夏 蚤休 鬼白 射干 鳶 芫花 堯花 莽草⁴⁴⁾ 羊躑躅 茵芋 鈎吻 括樓(括樓根) 防己 白斂 黃環 赭魅⁴⁵⁾ 羊桃 石長生 烏韭</p>	<p>附子 烏頭 天雄 半夏 虎掌 鳶尾 大黃 亭歷 桔梗 萹蕩子 艸蒿 旋覆花 藜蘆 鈎吻 射干 蛇合 恒山 蜀漆 甘遂 白斂 青葙子 藟菌 白及 大戟 澤漆 茵芋 貫衆 堯花 牙子 羊躑躅 商陸 羊蹄 篇蓄 狼毒 白頭翁 鬼白 羊桃 女青 連翹 閻茹 烏韭 鹿藿 蚤休 石長生 陸英 蘆艸 牛扁 夏枯艸 芫華</p>

* 밑줄 그은 약물은 『本草經校正』(필사본)과 『神農本草經』에서의 上中下品 약물 변화 양상을 표시한 것임

표 2. 『本草經校正』(필사본) 草部 本草의 三品 분류 변동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本草經校正』(필사본)이 취하고 있는 독특한 약물 분류 방식이다. 『本草經校正』(필사본)은 『神農本草經』의 三品分類인 대분류, 草木果穀 등의 중분류에 그치지 않고, 『本草綱目』과 유사하게 중분류 아래에 山草芳草濕草蔓草 등의 소분류를 추가하여 『神農本草經』과 『本草綱目』의 분류 방식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다⁴⁶⁾. 특히 菜部

에는 ‘蔬菜’라는 소분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本草綱目』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분류 항목으로 李奎峻이 독자적인 분류까지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약물의 개별 분류역시 표 2에서처럼 『神農本草經』 분류 중 菜部인 葵, 果部인 蓬蘽, 菜部인 本蘇, 木部인 紫葳, 莽草, 黃環을 모두 『本草綱目』의 약물 분류를 따라 草部로 바꾸고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약물 분류 순서와 세부 약물 나열 순서 등의 변화이다.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중분류 순서는 『神農本草經』의 玉石草·木·人獸·禽·蟲·魚·果·米穀·菜나 『本草綱目』의 水·火·土·金·石·草·穀·菜·果·木·服器·蟲·鱗·介·禽·獸·人이 아닌 草·木·果·穀·菜·蟲·鱗·介·禽·獸·人·水·金·石⁴⁷⁾으로 『神農本草經』이나 『本草綱目』의 분류 순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임상 활용도가 높은 ‘草部’, ‘木部’, ‘果部’ 등을 앞으로 배열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水部’, ‘金部’, ‘石部’를 뒤로 배열한 것으로⁴⁸⁾ 임상 실천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고 있는 것임을 추측케 한다. 세부 약물 나열 역시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本草經校正』(필사본)에서는 ‘甘草, 人蔘, 沙蔘, 黃耆, 丹蔘’으로 되어 있지만 『神農本草經』에서는 ‘菖蒲, 蘘華, 人參, 天門冬, 甘草’으로 되어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네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물 가짓수의 변화이다. 『神農本草經』은 본디 上品藥을 120종, 中品藥을 120종, 下品藥을 125종으로 하여 1년 365일에 약물 수를 대응시켰다고 전해지고 있다⁴⁹⁾. 하지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

- 37) 孫星衍 輯復. 神農本草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影印). 1977. pp.19-21, 127-128, 199-200.
- 38) 『本草經校正』(필사본)의 목록에는 ‘本蘇’로 본문에는 ‘木蘇’로 되어 있으나 『神農本草經』에는 ‘水蘇’로 되어 있어 ‘水’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39) 『本草經校正』(필사본)의 목록과 본문에 모두 ‘疑冬花’로 되어 있으나 『神農本草經』, 『本草綱目』에 모두 ‘款冬花’로 되어 있으며 이명도 없어 ‘款冬花’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40) 『本草經校正』(필사본)의 목록과 본문에 모두 ‘高歷’으로 되어 있으나 『神農本草經』에는 ‘亭歷’, 『本草綱目』에는 ‘葶藶’으로 되어 있어 ‘蒿’가 ‘亭’ 또는 ‘葶’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 41) 『本草經校正』(필사본)의 목록에는 ‘陸英’으로 본문에는 ‘陸英’으로 되어 있어 목록이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神農本草經』에는 ‘陸英’으로 되어 있다.
- 42) 『神農本草經』에는 ‘烏喙’라는 약물명은 없다. 『本草經校正』(필사본)에서는 ‘烏頭’에 대한 설명은 『本草綱目』에서 ‘附子’와 나란히 나오는 ‘烏頭’의 설명을 기재하고 있어 ‘烏喙’에 해당하는 설명은 『神農本草經』의 ‘烏頭’, 『本草綱目』의 독립된 ‘烏頭’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있다.
- 43) 『神農本草經』 중에는 없는 약물로 『名醫別錄』에 실려 있다. 李時珍(1982)의 주석에 따르면 “본래 『本經』이라고 기재되어 있다(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92).” 『本草經校正』(필사본)의 由跋 아랫 부분에도 그 출처가 本經으로 기재되어 있어 『本草綱目』을 참고하여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4) 『神農本草經』 중 莽草는 下品 木部 속해 있다.
- 45) 『神農本草經』 중에는 없는 약물로 『名醫別錄』에 실려 있다. 李時珍(1982)의 주석에 따르면 “본래 『本經』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99).” 『本草經校正』(필사본)의 赭魅 아랫 부분에도 그 출처가 本經으로 기재되어 있어 『本草綱目』을 참고하여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6) 『本草經校正』(필사본)에서는 上藥의 菜部가 蔬菜로 소분류되어 있다. 『本草經校正』(필사본) 上藥 菜部에 실려 있는 菘藟, 冬瓜, 青芝, 苦菜, 黃芝, 白芝, 黑芝, 木耳는 각각 『本草綱目』에서 菘藟, 苦菜는 柔滑類, 冬瓜는 蔬菜類로, 青芝, 黃芝, 白芝, 黑芝, 木耳는 芝樞類에 속해 있으며, 蔬菜라는 분류는 없다. 蔬菜 외에 다른 소분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분류가 완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本草經校正』에서는 菜部 9

- 종이라고 한데 반해 목록 중에 나와 있는 가짓수는 8종이고 본문 중의 가짓수는 10종으로 서로 차이를 보인다.
- 47) 『本草經校正』(필사본) 중에서는 水部가 本草附錄에 처음 나오므로 人·水·金石의 순서일지 人·金·水·石일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本草綱目』에서 金石이 연달아 나오고 『神農本草經』에서도 광물성 물질을 玉石에 함께 분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金石이 연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人·水·金石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참고로 『東醫寶鑑』「湯液篇」의 약물 분류 순서는 水·土·穀·人·禽·獸·魚·蟲·果·菜·草·木·玉·石·金이다.
- 48)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188.
- 49)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143. “上古神農作爲本草, 凡著三百六十五種, 以配一歲, 歲有三百六十五日, 日生一草, 草治一病.”(陶弘景 『藥總訣』「序」의 원문을 재인용한 것)

輯復者	上品	中品	下品	합계
孫星衍	142	113	103	358
森立之	125	114	118	357
王闔運	144	115	106	365
尙志鈞	120	120	125	365
曹元宇	119	120	122	361
王筠默	125	118	122	365
馬繼興	120	120	125	365
李奎峻	125	120	120	365

표 3. 『神農本草經』 집복본 및 『本草經校正』(필사본)의 上中下品 本草 개수⁵⁰⁾

해 집복된 『神農本草經』은 각각 약물의 가짓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李奎峻은,

이에 347종을 취하고 부족한 18종은 한 가지 약물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충하여 『本草經』 세 권을 구성하고... 더해지고 첨가된 것들 중에서 통용되는 80종을 취하여 뒤에 첨부하였다.

하고 하여 365종의 약물 가짓수 선정을 고심하였고 그 외에 통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는 따로 80종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中品 약물 13종을 별도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神農本草經』의 輯復을 위한 校正이 아닌 임상 활용을 위한 『本草經』의 복원을 의도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3) 新補中藥과 本草增附百選

『本草經校正』(필사본) 구성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新補中藥과 本草增附百選의 추가이다. 本草經校正 目錄 중에는 빠져 있지만, 新補中藥은 乾冊 神農本草經卷二 뒤에 그리고 本草增附百選은 坤冊 卷三 뒤에 그 내용이 덧붙여 있어 上中下品の 내용과 구별되는 구성임을 보여준다. 新補中藥에서는 13종(표 4), 本草增附百選에서는 80종(표 5)의 약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新補中藥은 草部의 약물

에 木部의 약물인 丁香이 섞여 있음에도 표 4와 같이 약물 분류 없이 무작위로 배열하고 있지만 本草增附百選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물의 분류 방식 및 구성을 앞의 권 1, 2, 3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두 부분의 내용 출처는 모두 『本草綱目』이다.

4) 『本草經校正』(필사본)과 『神農本草經』, 『本草綱目』의 본문 내용 비교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체례는 기본적으로 『本草綱目』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특히 乾冊의 本草綱目序例, 本草藥品總數, 神農本草經名例, 歷代諸家本草는 『本草綱目』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本草綱目序例의 『神農本草經』에 대한 설명을 『本草綱目』 歷代諸家本草의 『神農本草經』에 대한 주석에서 가져오거나, 歷代諸家本草 중의 『神農本草』에 대한 설명을 『本草綱目』 神農本經名例 중의 일부를 가져오고 있는 것 등은 『本草綱目』에 대한 의존도를 잘 드러내어 준다. 하지만 『嘉祐本草』, 『圖經本草』 등에 대한 설명에서 『本草綱目』 중의 해당 내용을 가져오다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모습 등은 본 필사본이 『本草綱目』의 체례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아직 편집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본임을 나타내고 있어 단순히 『本草綱目』의 축약본이라고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약물에 대한 구체 내용의 경우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약물의 性味나 효능을 수정하고 있는데 특히 上品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

50)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263.

본초명

何首烏 補骨脂 豆蔻 白豆蔻 肉豆蔻 益智仁 縮砂 延胡索 藿香 莎草 王不留行 鬱金 蓬莪朮 木賊 丁香 荊三稜

표 4. 『本草經校正』(필사본)의 新補中藥

분류	본초명
草部 ¹⁶ 種	黃精 山慈姑 華芡 香薷 鬱金 大薊 小薊 胡蘆巴 燈心 虎杖 續隨子 菝葜子 罌子粟 土茯苓 威靈仙 使君子 南星
木部 ⁵¹	沈香 檀香 烏藥 熏陸香 沒藥 安息香 蘇合 龍腦香 蘆會 胡桐淚 椿梲 海桐 訶黎勒 大風子 楮 蜜 蒙花
果部 ¹³ 種	栗 柿 梨 木瓜 柚 胡桃 安石油 荔枝 龍眼 海松子 茗 沙糖 西果
穀部 ⁵ 種	粳米 飴糖 醬 醋 酒
菜部 ¹³ 種	芥 蕪菁 萊菔 菘 薺 馬齒莧 萵苣 茄 胡荽 蒜 懷香 胡瓜 南瓜
蟲部 ¹ 種	蜘蛛
鱗部 ⁴ 種	鯽魚 鱈魚 鮓 鰻鱺魚
介部 ² 種	石決明 田蠃
禽部 ² 種	雀 雉
獸部 ² 種	虎 臘納獸
人部 ³ 種	人尿 人尿
水部 ¹ 種	井泉水
石部 ² 種	花乳石 礞石

표 5. 『本草經校正』(필사본) 本草增附百選의 본초 분류와 본초명⁵²⁾

는 性味 수정에 대한 李奎峻의 의견은 扶陽論을 위시 한 본인의 의학 사상에 따라 교정을 진행했음을 드러 내어 준다.

우측의 上品藥은 모두 少火의 기운을 얻었 기 때문에⁵³⁾ 風寒濕痺를 몰아낼 수 있어 사

람으로 하여금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더 하며 수명을 늘리고 늙지 않게 한다. 옛 책 에서 濕을 제거하고 氣를 더하는 약에 대해 寒冷케 하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그릇된 것이므로 이제 모두 溫平으로 고치 고 테두리를 더해 기재하였다. 平溫의味が 寒熱을 제거할 수 있는데 退熱이라는 말에 의해 寒하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읽 는 사람들이 더욱 상세히 살펴서 고치지 않 은 것이 있다면 이로써 미루어보는 것이 가 하다.(右上品藥은 皆得少火之氣 故로 能逐去 風寒濕痺하야 令人輕身益氣하며 延年不老라 舊 本에 除濕益氣之藥을 或作寒冷하니 明是爲誤라 故로 今皆改作溫平하고 加匡以識之하니 蓋平溫 之味는 能去寒熱하니 彼因退熱爲寒者는 誤矣라

51) 木部 결에는 十이라고만 되어 있고 種數가 빠져 있어 약물 가짓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2) 本草附錄의 목록과 본문과의 약물 종류가 서로 차이를 보 이므로 약물 분류와 약물명은 본문이 아닌 本草附錄 목 록 중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53) 홍원식 편.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 부. 1985. p.23. “壯火散氣, 少火生氣.”
‘上品藥이 모두 少火의 기운을 얻었다’라고 한 것은 李奎 峻의 독특한 견해로서 ‘少火生氣’라고 말한 『素問』「陰陽 應象大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上品藥에 대한 설명을 시 도하는 것이다. 이는 李奎峻의 의학 사상인 扶陽論의 언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약물	출처	설명
	『神農本草經』	味苦寒 主心腹邪氣 五疸 補中益氣 利九竅 通水道 一名紫丹 一名紫芩 <small>御覽引云 一名地血 大觀本無文 生山谷</small>
紫草	『本草綱目』	釋名 紫丹 <small>別錄</small> 紫芩 <small>音禿</small> 此芩 <small>廣雅音紫</small> 藐 <small>爾雅音遙</small> 地血 <small>吳普</small> 鴉銜草 <small>時珍曰 此草花紫根紫 可以染紫 故名 爾雅作苳 瑤個人呼爲鴉銜草</small> 集解... 根 修治... 氣味 苦寒無毒 權曰 甘平 完素曰 苦溫 時珍曰 甘鹹寒 入手足厥陰經 主治 心腹邪氣 五疸 補中益氣 利九竅 通水道 療腹腫脹滿痛 以合膏 療小兒瘡及面皴 <small>別錄</small> 治惡瘡癬癩 <small>甄權</small> 治斑疹痘毒 活血涼血 利大腸 <small>時珍</small>
	『本草經校正』	釋名 紫丹 <small>別錄</small> 紫芩 <small>音禿</small> 此芩 <small>廣雅音紫</small> 藐 <small>爾雅音遙</small> 根氣味甘溫無毒 <small>權曰 甘平 完素曰 苦溫</small> 主治心腹邪氣 五疸 補中益氣 利九竅 通水道 療腫脹滿痛 以合膏 療小兒瘡及面皴 <small>別錄</small>
	『神農本草經』	味甘寒 主折跌絕筋 傷中 逐血痺 填骨髓 長肌肉 作湯 除寒熱積聚 除痺 生者尤良 久服 輕身不老 一名地髓 生川澤
乾地	『本草綱目』	釋名 芑 <small>音戶</small> 芑 <small>音起</small> 地髓 <small>本經</small> 大明曰 生者以水浸驗之 浮者名天黃 半浮半沉者名人黃 沉者名地黃 入藥沉者爲佳 半沉者次之 浮者不堪 時珍曰 爾雅云 芑 地黃 郭璞云 江東呼爲芑 羅願云 芑以沉下者爲貴 故字從下... 集解... 乾地黃 修治... 氣味甘寒無毒 別錄曰 苦 權曰 甘平 好古曰 甘苦寒 氣薄味濃 沉而降 陰也 入手足少陰厥陰及手太陽之經 酒浸 上外行 日幹者平 火幹者溫 功用相同 元素曰 生地黃大寒 胃弱者斟酌用之 恐損胃氣... 主治傷中 逐血痺 填骨髓 長肌肉 作湯除寒熱積聚 除痺 療折跌絕筋 久服輕身不老 生者尤良 <small>本經</small> 主男子五勞七傷 女子傷中胞漏下血 破惡血 瀉血 利大小腸 去胃中宿食 飽力斷絕 補五臟內傷不足 通血脈 益氣力 利耳目 <small>別錄</small> 助心膽氣 強筋骨長志 安魂定魄 治驚悸勞劣 心肺損 吐血鼻衄 婦人崩中血暈 <small>大明</small> 產後腹痛 久服 變白延年 <small>甄權</small> 涼血生血 補腎水真陰 除皮膚燥 去諸濕熱 <small>元素</small> 主心病掌中熱痛 脾氣痿蹶嗜臥 足下熱而痛 <small>好古</small> ...
	『本草經校正』	釋名 芑 <small>音戶</small> 芑 <small>音起</small> 地髓 <small>本經</small> 乾地黃 氣味甘平無毒 <small>好古曰 甘苦寒 氣薄味濃 沉而降 陰也</small> 主治傷中 逐血痺 填骨髓 長肌肉 作湯除寒熱 療折續筋 生者尤良 久服 輕身不老 <small>本經</small> 女子傷中胞漏下血 破惡血 瀉血 <small>別錄</small>

표 6. 『神農本草經』, 『本草綱目』, 『本草經校正』(필사본)의 개별 본초 설명

讀者更詳之。其有未改者。以此推之可也나라)

이처럼 性味, 효능 등의 수정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표 6의 紫草, 乾地 예에서와 같이 『神農本草經』을 저본으로 하되 『本草綱目』의 주석을 참고하거나 『名醫別錄』 등의 설명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滑石’, ‘車前子’ 등과 같은 일부 약재의 경우 『本草綱目』 중에 그에 적합한 주가들의 설명이 보이지 않음에도 『神農本草經』의 藥性인 ‘寒’과는 다르게 滑石은 ‘平’으로, 車前子는 ‘溫’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서의 의견을 참고하였던지 그렇지 않으면 李奎峻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진다⁵⁴⁾. 즉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저자인 李

奎峻이 당대 유행하던 본초 서적이었던 『本草綱目』의 내용과 형식을 빌려 『神農本草經』을 교정하려 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⁵⁵⁾.

5) 『神農本草』와 『醫鑑重磨』 중 藥性歌와의 관계

『醫鑑重磨』(1922)의 藥性歌는 이미 오재근, 윤창

서처럼 滑石, 車前子 등의 일부 약물의 경우 () 표기 없이 성미 수정을 가하고 있고 馬肉, 蟾蜍 등은 () 표기 후에 성미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55) 홍문화(1982)에 따르면 『本草綱目』은 조선조 숙종38년(1712)에 조선에 들어와 영조, 정조 대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검토 이용되었다고 한다(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6.). 『本草綱目』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조선의 의서로는 『醫門寶鑑』(1724), 『廣濟秘笈』(1790), 『本草精華』(저작년도 미상), 『醫宗損益』(1868) 등이 있다. 『本草綱目』이 한국 한의학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54) 오재근, 윤창열. 醫鑑重磨의 약성가에 대한 연구. 2009 소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 p.16.

上品에 해당하는 본초 뿐 아니라 中品, 下品에 속하는 약물에서도 () 표기 후에 性味 등을 수정하고 있다. 본문에

열(2009)에서 밝힌 것처럼 『萬病回春』, 『濟衆新編』, 『醫宗損益』 등 기존 의서 중의 약성가를 활용하되 性味, 효능 및 약물 분류 등의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의학관에 따라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⁵⁶⁾, 『本草經校正』(필사본)은 이러한 藥性歌의 수정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本草經校正』(필사본)의 필사연도가 명확하지 않아 두 서적 간의 선후 관계를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醫鑑重磨』 藥性歌의 수정 부분이 『本草經校正』(필사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醫鑑重磨』 중에 ‘紫草’는 ‘紫草甘溫, 能通九竅, 利水消腫, 痘疹最要⁵⁷⁾’라고 되어 있는데, 『神農本草經』이나 『本草綱目』에서는 ‘紫草’의 性味が ‘苦寒’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本草經校正』에서는 ‘甘溫’으로 되어 있다. 또 ‘乾地’는 ‘乾地甘平, 能除寒熱, 長肌填髓, 逐瘀療折⁵⁸⁾’이라고 되어 있는데 『神農本草經』이나 『本草綱目』에서는 ‘乾地’의 性味が ‘甘寒’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本草經校正』에서는 ‘甘平’으로 되어 있고, 효능에 대한 설명 역시 『本草經校正』의 내용과 유사함을 보인다(표 6 참조). 이는 李奎峻이 실시하고 있는 『醫鑑重磨』 중의 藥性歌에 대한 수정이 押韻을 위한 단순한 글자의 교정이나 오자 수정이 아니라 『神農本草經』 및 『本草綱目』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본인의 임상 경험 등에 의한 결과물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대목이다.

III. 고찰

李奎峻의 학통을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李元世의 제자 崔春吉로부터 최근 입수한 3권 2책의 本草 관련 필사본은 19세기 말 조선의 본초학 관련 저작으로 추정되며 입수 경위, 전문가의 견해, 序文의

내용, 본문 중에 드러난 저자의 의견 및 다른 저작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石谷 李奎峻의 저작으로 추정되지만 定本이 아닌 저술 과정 중에 유출된 중간본으로 李奎峻의 의학관과 本草에 대한 관점을 오히려 반영하고 있다.

본 필사본의 제목과 관련하여 ‘神農本草’로 할 것인지 ‘本草經校正’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表題에는 ‘神農本草’, 卷首題에는 神農本草經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명을 ‘神農本草’ 또는 ‘神農本草經’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할 경우 東漢 말 본초 저자인 『神農本草經』과 혼동될 여지가 있고, 본 필사본이 『神農本草經』에 대한 집본본이 아니며, 石谷 李奎峻이 본인의 견해에 따라 형식, 내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하고 있으므로 序題와 目錄題에 따라 ‘本草經校正’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李奎峻은 『黃帝內經素問』을 간추리고 정리한 저작은 『黃帝內經素問大要』로, 『東醫寶鑑』을 간추리고 정리한 저작은 『醫鑑重磨』로 그 제목을 삼고 있다.

본 서적은 『神農本草經』이 채택하였던 전통적인 三品分類 방식과 『本草綱目』의 자연분류를 융합한 형태의 약물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약물의 三品分類 및 약물 분류의 배열과 세부 약물의 나열 순서에서 『神農本草經』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기존 『神農本草經』 약물에 中品 약물 13종과 통용되는 약물 80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新補中藥과 本草增附百選을 따로 구성하고, 자신의 의학관에 따라 약물의 性味와 효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또 다른 저작인 『醫鑑重磨』 藥性歌에 반영하여 대중화까지도 모색하고 있어 기존 조선 의학 서적이 지니고 있지 않은 독창적인 면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 결과 李奎峻은 이문서인 『黃帝內經素問大要』, 임상서인 『醫鑑重磨』 뿐 아니라 『神農本草經』을 교정한 『本草經校正』(필사본)을 저술하여 本草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조선 조 의학 전통 전반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서적의 소개로 인해 石谷 李奎峻의 의학사상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한국 본초학술사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本草經校正』의 定本이 아닌

56) 『醫鑑重磨』 중의 藥性歌와 관련해서는 오재근, 윤창열. 醫鑑重磨의 약성가에 대한 연구. 2009 소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 pp.9-27. 참조.

57) 이규준. 醫鑑重磨 天 卷二. 대구. 徐丙五. 1922. p.11.

58) 이규준. 醫鑑重磨 天 卷二. 대구. 徐丙五. 1922. p.3.

필사본이라는 점과 『本草綱目』의 형식 및 내용을 상당 부분 채록하고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될 수 있겠으나 本草學 관련 전문 서적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東醫寶鑑』 「湯液篇」 이후 ‘藥性歌本草學’으로의 발전으로 설명되던 조선의 본초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판단되며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IV. 결론

1. 최근 입수한 3권 2책의 本草 관련 필사본은 입수 경위, 전문가의 견해, 序文의 내용, 본문 중에 드러난 저자의 의견 및 다른 저작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石谷 李奎峻의 저작을 제 3자가 轉寫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김두중(1981)이 李奎峻의 저작이라고 하였던 『本草』 上·下 2冊(寫本)의 전사본으로 추측된다. 또한 表題에는 ‘神農本草’로 기재되어 있으나 序題, 目錄題 및 본문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本草經校正』(필사본)으로 명명한다.

2. 『本草經校正』(필사본)은 『本草綱目』의 체제나 본문의 내용을 빌려오고는 있지만 약물의 性味나 효능 등의 수정은 扶陽論을 위시한 본인의 의학 사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本草綱目』의 내용과 형식을 빌린 『神農本草經』 교정본으로 볼 수 있다.

3. 『本草經校正』(필사본)은 『本草綱目』이 폐기한 『神農本草經』 이래 전통적인 약물 분류 방식인 三品分類를 복원하고 있지만, 『本草綱目』의 분류 방식을 도입하여 本草에 대한 대·중·소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약물 가짓수는 『神農本草經』에서 밝힌 바와 같이 365종을 선정하고 있으나 上品藥 125종, 中品藥 120종, 下品藥 120종과는 별도로 新補中藥에서 13종, 本草增附百選에서 80종의 약물을 추가하는 등의 독창적인 약물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4. 本草經校正目錄 중에는 빠져 있지만, 乾冊의 神農本草經卷二 뒤에는 新補中藥, 坤冊의 神農本草經卷三 뒤에는 本草增附百選을 덧붙이고 있다. 특히 本

草增附百選은 上中下品の 약물 구분을 하지 않은 채 80종 약물에 대한 내용이 기재하고 있는데, 약물의 분류 방식 및 구성은 앞의 권 1, 2, 3과 동일하고 내용의 출처는 『本草綱目』이다.

5. 이규준의 또다른 저작물인 『醫鑑重磨』 중의 藥性歌는 押韻을 위한 단순한 글자의 교정이나 오자 수정이 아니라 『神農本草經』 및 『本草綱目』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임상 경험 등에 따른 결과물이다.

참고문헌

<논문>

1.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p.8.
2.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12(2). pp.15-53.
3. 권오민, 차웅석, 김남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1). pp.3-29.
4. 정수경. 石谷 扶陽論의 韓方婦人科 臨床應用을 위한 醫史學的 考察.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김중환.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1. 5. pp.18-46.
6. 김중환.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57-63.
7. 김창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 오재근, 윤창열. 醫鑑重磨의 약성가에 대한 연구. 2009 소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 pp.9-27.
9. 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6.

<단행본>

1. 三木榮. 朝鮮醫籍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42.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

1963. p.357, 358.
3. 金斗鐘. 韓國醫學史(全). 서울. 探究堂. 1981. p.463.
 4.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39, 143, 188, 263.
 5.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影印). 1989. p.208.
 6.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
 7. 寇宗奭. 本草衍義. 歷代中醫珍本集成 6.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
 8. 王肅. 新譯孔子家語. 臺北. 三民書局. 1998. pp.343-344.
 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01.
 10. 이규준. 醫鑑重磨 天. 대구. 徐丙五. 1922. p.1, 3, 11.
 11. 孫星衍 輯復. 神農本草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影印). 1977. pp.19-21, 127-128, 199-200.
 1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92, 1199.
 13. 石戶谷勉. 漢方藥物分類史大觀. 本草. 1933. 8. pp.352-358.
 14. 홍원식 편.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p.23.

<기타>

1. 소문학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 May 6]. Available from: URL: <http://www.somun.or.kr>.

감사의 글

필자는 소문학회를 통해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학회 관계자의 소개로 현 대구 동성한약방 대표이신 최춘길 선생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던 『本草經校正』(필사본) 원본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소문학회 관계자와 최춘길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